

한해동안 추진한 농촌지원사업 평가

농진청, 평가회 오늘 온라인 개최... 농산물 가공품 판매 집중 지원 '균형발전 우수사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 한해 추진한 농촌지원사업을 평가하고, 2021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평가회(평가회)를 오늘 온라인으로 연다.

평가회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중앙 농촌진흥기관과 도(道)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최소 인원(15명)만 참석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올해 농촌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농산물 가공품 온라인 판매를 집중 지원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치유농업을 통한 어르신 인지 기능 개선과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보건복지부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간 협업은 물론 치유농업의 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농촌관광 사업장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안전관광 클린사업장을 선정(241개소)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이바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1년 농촌지원

사업 목표를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이철원 국장은 "코로나 이후 농촌지원사업은 치유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여 농의소득 창출, 여성·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건협 전북지부

첨단 3.0T MRI 도입

환자 안전·편의 고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첨단 3.0T MRI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3.0T MRI는 새로운 기술의 하드웨어와 검사기법을 탑재해 고해상도의 영상화를 통해 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3.0T MRI는 복부 검사 시, 환자가 반복적으로 숨을 참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동 내비게이터(Auto Navigator) 기법이 도입돼 숨을 쉬면서 편하게 복부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소음 절감 기법인 사일런스(Silenz) 스킴 기능을 통해 기존에 환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던 장비 소음을 대폭 줄여 뇌검사에 이어 근골격계 및 척추 이미지 검사 시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Zero TE(CT-like Imaging)라는 특수검사기법 탑재로, 기존 MRI 검사에서는 불가능했던 CT와 같은 근골격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폐방사선 피폭 걱정 없이 새로운 진단 방식으로 환자 검사 가능한 장점이 있다.

노기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이번 첨단 MRI 도입으로 더욱 향상된 고해상도의 영상과 초고속 검사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소미숙아 뇌용적

언어발달 관계 연구

전북대병원 박승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소아청소년과 박승환 전공의가 국소 미숙아 연구로 제70차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초

록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승환 전공의의 연구는 '국소 미숙아 중 교정주수 36주 경 자기공명영상으로 측정된 뇌용적과 교정주수 2세에 표현언어 발달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생후 초기의 뇌 발달과 언어 발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병원에서 2014년부터 5년 동안 국소 미숙아(생후 32주 미만)로 출생한 환자 42명 중 선천성 기형이 없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소 미숙아 가운데 교정 36주경 자기공명영상(MR)을 시행한 후 교정 2세에 언어검사를 시행해 뇌용적량과 수음 및 표현언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뇌용적량이 적을수록 표현언어가 수용언어능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형목 상 단어, 구문, 비유능력에서 표현언어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상 기자



25일 코엑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열린 식품기술대상.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식품연·장수농가, 프로 바이오텍스 기술이전 협약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주)장수농가(대표 변은국)와 25일 코엑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용 프로바이오티스(YT2) 기술이전과 연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식품(연) 김윤태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바이오티스(YT2)는 골밀도 개선 및 통증 민감도 개선, 단기 기억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유산균 원료로써 경쟁력과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 증상으로 인식이 변화하면서 갱년기

치료 분야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YT2 복용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갱년기 증상 치료에서 나타나는 유방암, 심장질환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식품(연)은 국내 식품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보유기술 및 노하우의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패밀리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주)장수농가는 올해 선정됐다.

또한 식품(연)은 패밀리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연 주관 연구개발·기술지원 사업 우선적 연구 참여 ▲애로사항에 대한 우선적 지원 ▲연구원 인

증, 분석 서비스 및 장비 사용료 감면 ▲식품 박람회 등 홍보 전시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술 이전 및 협약식을 통해 식품(연)과 (주)장수농가는 공동으로 프로바이오티스 YT2의 '셀티바 프로바이오티스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산업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식약처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신청할 계획이다.

박동준 원장은 "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산시켜 국내 기능성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출연(연)과 기업의 바람직한 협업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화정초

스쿨팜 김장담그기 체험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25일 전주화정초등학교(교장 정미옥)와 함께 학생, 선생님 등 2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별로 스쿨팜 김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다.

스쿨팜 김장체험은 지난 12일 전주대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21개 초등학교 1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통문화인 김장을 체험하면서 농업의 소중함과 먹거리 가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김장체험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체험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기르고 수확한 배추로 직접 김장을 담갔다.

박성일 본부장은 "학생들이 스쿨팜 체험학습장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장을 담그며 맛을 보며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농업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쿨팜사업은 전북농협과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전주시·익산시·군산시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40개 초등학교에서 3,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으며, 김장체험을 마지막으로 올해 체험은 모두 마무리 된다.



전북농협은 25일 전주화정초등학교와 함께 학생, 선생님 등 2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별로 스쿨팜 김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다.

전북농기원, 꽃병이 가공식품 시장테스트 실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적용 농식품 시장테스트에 베리류(블루베리, 복분자, 블루베리)의 발효를 돕기 위해 사육한 흰색박이꽃무지(꽃병이)의 가공식품으로 네가지 맛 간식용 에너지바(베리베리쿠퍼리) 형태로 소비자 테스트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된 시제품은 간식용 에너지바의 형태로 국내산 잡곡으로 만들어진 시리얼에 꽃병이 분말가루와 베리류 3가지의 각각의 열매(오디, 복분자, 블

루베리) 분말가루를 첨가해 만든 제품으로 꽃병이의 간기능 개선 효과와 베리류 열매의 수축해소, 노화예방, 피부미용, 당노개선, 갱년기 완화, 피로회복, 눈 건강개선 등의 가능성이 추가된 제품으로 평가되어진다.

간식용 에너지바는 단백질 보충은 물론이고 높은 기능성을 가진 고효율성 음식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도 좋게 1개에 20g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테스트 결과 30g 정도 기준으로 하면 아침 대용으로도 좋을 것으로 평가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UNGC 'LEAD 회원' 선정

국민연금, 2년 연속... 지속가능연금 '결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4일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지속발전가능 노력을 인정받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의 'LEAD 회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는 유엔이 채택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을도록 도모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LEAD 회원은 인권·반부패·노동·환경 분야 UNGC 10대원칙 확산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2020년 한국의 10개 기관(기업)을 선정한(LEAD) 회원으로 선정했으며 공단

은 공공부부분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

공단은 2012년 UNGC 한국협회 가입 이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CEO 지지서약, 취약계층 보호리더십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및 UNGC 10대 원칙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보호?반부패 등 UNGC의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성 의제 수립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이 인권경영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북 수출, 두달 연속 월수출 5억달러 이상

10월 5억780만 달러로 9월에 이어

수입은 3억3834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달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한 5억 780만 달러로 집계됐다.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억 달러 이상 수출되었고, 월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를 감안한 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발표한 2020년 10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5억 780만 달러, 수입은 3억 3,344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감소했으나, 지난 달 조업일이 작년 보다 2일 적었음을 감안하면 일 수출액은 2,418만 달러로 전년(\$2,255만)보다 7.2% 증가한 셈이다. 월 수출액도 지난 달에 이어 두달 연속 5억 달러를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동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위 품목을 차지했다. 동제품은 전년 대비 55.6% 늘어난 4,334만 달러 수출되었다. 이밖에 합성수지(\$3,756만, 0.5%), 농기계(\$2,964만, 18.6%), 인조섬유(\$2,497만, 18.6%), 선재봉강철근(\$2,262만, 1.2%), 기타화학공업제품(\$1,939만, 50.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정밀화학원료(\$4,281만, -21.9%), 건설광산기계(\$2,853만, -6.4%), 자동차(\$2,704만, -53.7%), 자동차부품(\$1,929만, -27.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2,920만, -17.6%), 베트남(\$2,870만, -41.2%)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최대 시장인 중국(\$1억 2,098만, 3.1%), 미국(\$9,073만, 22.1%)을 포함해 폴란드(\$2,261만, 81.2%), 대만(\$1,581만, 27.1%) 등으로 수출이 늘어났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지난 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비교적 선전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전북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입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수출회복이 지속될지 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회복되던 수출경기도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더욱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공사현장 내 음주·보호구 미착용 'No'

조달청,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대폭 강화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청장 김경우)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사현장 내 음주, 위험구역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작업자 금지사항을 포함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현장에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책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교육과 사업자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작업자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투입 전 모든 근로자 음주여부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담임 작업 배제 ▲사고위험 큰 건설장비 운전자 하루 2회 이상, 기타 작업자 의식 시 회음주 측정 ▲흡연구역 외 흡연 전면 금지

및 화기금지구역 내 흡연자 작업 배제 ▲사업자의 보호구 지급관리 여부 점검 및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 위반 횟수에 따른 안전교육 등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인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에 작업자 위력관리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해 위반사항 등의 전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사계약에서 일자리 예측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재는 시설사업국장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사현장은 작업자 음주, 흡연 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우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